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유 병 규
편집위원 : 이부형, 홍순직, 주원, 박덕배, 허만울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0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국내 비경제활동인구 너무 많다	
Executive Summary	1
1. 한국의 실업률 및 고용률	5
2.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7
3. 정책적 시사점	19
<참고> 비경제활동인구 데이터	22
■ HRI 경제 지표	24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국내 비경제활동인구 너무 많다

1. 한국의 저고용률과 원인

2005년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73으로 뉴질랜드의 3.6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률은 63.69로 OECD 평균인 65.45보다 낮으며 OECD 30개 국가 중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역시 낮은 것은 실업률 산정 시 비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업인구 감소에 의해 실업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와 실업인구의 합) 중 실업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며,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 중 취업인구의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던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 특히 취업인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의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인 65%로 끌어올리려면 2006년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59만 6천 명이 취업인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2.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징

(분석 개요)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 분석을 위해 통계청 원시자료 중 2006년 가구부문 경제활동인구를 이용하였다. 통계청 원시자료는 성별, 교육정도별, 수학여부별, 활동 상태별, 1주간 구직여부별, 취업가능성별, 만 나이, 승수(각 항목에 속하는 인구를 나타내며 년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12로 나누어야 함)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원데이터에서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1주간 구직 여부 0번과 취업가능성 1번을 제거하여 산출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세 이상 29세 이하), 장년층(30세 이상 54세 이하), 노년층(55세 이상)의 세 연령대로 구분하였다.

(특징 1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가장 큼)

2006년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1,478만 명으로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3,876만 명의 38.1%에 이르며, 이 중 청년층이 35.2%(521만 명)로 가장 많고, 노년층과 장년층이 각각 30.9%(501만 명), 33.9%(457만 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 2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2배)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 비중은 33%(489만 명)이었으며, 여성 비중은 67%(990만 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남성 장년층 비중이 4.6%(68만 명)인데 반해 여성 장년층 비중이 26.3%(388만 명)로 남성 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5.7배에 달했다.

(특징 3 : 유사 실업자가 상당수 존재)

모든 성별 및 연령대별에서 쉬었음, 기타, 취업학원 통학 및 취업 준비와 남성 육아 및 가사와 같은 실업에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의 14.8%(219만 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도의 실업률을 산출한 결과 12.2%로 기존 실업률 3.6%의 3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쉬었음은 8.6%(128만 명), 기타는 1.6%(24만 명), 취업학원 통학 및 취업 준비는 3.6%(53만 명)로 나타났으며, 남성 육아 및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5만 명)를 기록했다.

(특징 4 : 남성에 비해 여성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큼)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 고졸의 비중은 12.5%(185만 명)로 가장 컸으며, 중졸 9.6%(142만 명), 초졸 6.7%(99만 명), 대졸 3.1%(46만 명), 전문대졸 0.8%(12만 명), 대학원 이상 0.3%(5만 명)을 차지했다. 반면 여성은 고졸의 비중이 23.9%(354만 명)로 가장 컸으며, 중졸 12.5% (185만 명), 초졸 19.4%(287만 명), 대졸 7%(103만 명), 전문대졸 3.7%(55만 명), 대학원 이상 0.3%(5만 명)을 차지했다.

(특징 5 : 인문계열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타계열 비중보다 큼)

인문계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48.9%를 차지하는 반면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및 의약계열 비경제활동인구는 33.9%를 차지했다.

(특징 6 : 고졸 이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절대적)

비경제활동인구 중 모든 연령층에서 고졸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84.7%(1,252만 명)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장년층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7.3%(107만 명)로 남성의 1.3%(19만 명)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노년층 남성의 비중이 1.7%로 여성의 0.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3.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고용정책은 단순한 실업인구 감소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잘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한국은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낮은 상태이다. 한국이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실업인구의 취업인구로의 전환에서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인구로의 전환을 통해 고용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규 교과 과정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통해 상급 교육 과정으로의 진학이 불가능한 청년들의 조기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들에 대한 고용 보조 등의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축소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 마련, 청년층들에 대한 사회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장년층의 경제 활동 의지를 높여 주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사오정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장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능력에 비해 일찍 사회에서 퇴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이직, 전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급 여성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고급 여성 인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가사 및 육아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양적·질적인 확충, 가정과 직장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제도 및 재택근무제도의 도입 및 확산 등의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유사 실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 실제로 실업률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업 및 유사 실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다섯째, **대졸 이상 숙련 노동자의 사회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4년제 이상 대학 교육과정이 사회적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재학 등의 활동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및 직업의식 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적 활용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인문사회계열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인문계열과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인문계열 출신 인재의 사회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타계열 출신 인재들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 회계, 교육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고도화 및 성장 가속화를 통해 인문 사회계열 출신들을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일곱째, **정부는 저학력 청장년층에 대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제조업 등 산업 현장 경험이 많은 숙련 퇴직 노동자 등을 활용함으로써 청·장년층의 취업 가능성은 물론이고 기술 전승, 고령자 활용도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뛰어난 경우, 직접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국내 비경제활동인구 너무 많다 >

한국의 실업률 및 고용률	
낮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	- 2005년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73으로 뉴질랜드의 3.6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률은 OECD 평균 65%보다 낮은 수준 63%임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인구로의 전환 필요	- 실업률과 고용률이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인구로의 전환을 통해 고용률을 상승시켜야 함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큼	- 비경제활동인구(1,478.7만 명) 중 청년층이 35.2% (521만 명)로 가장 많으며, 노년층과 장년층이 각각 30.9% (501만 명)와 33.9% (457만 명)임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남성의 2배	-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67%(990만 명)로 남성의 33%(489만 명)의 2배 이상 많음
유사 실업자 상당수 존재	- 모든 성별 및 연령대별에서 쉬었음, 기다, 취업학원 통학 및 취업 준비와 남성 육아 및 가사와 같은 실업에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의 14.8%(219.2만 명)임
남성에 비해 여성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큼	-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구의 비중은 여성이 7.3%(108만 명)로 남성의 3.4%(51만 명)보다 많음
인문계열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타계열보다 큼	- 인문계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48.9%를 차지함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졸 이하 비중이 절대적	- 비경제활동인구의 84.7%(1,252만 명)가 고졸 이하의 학력임

정책적 시사점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흡수	- 정규 교과 과정과 직업훈련의 연계 및 지역 기업들에 대한 고용 보조 등의 지원제도 마련을 통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축소해야 함 - 청년층 자립지원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 마련
장년층의 경제활동 의지 제고	- 노동 능력에 비해 일찍 사회에서 퇴출한 장년층의 이직, 전직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고급 여성 인력 활용 필요	- 여성의 가사 및 육아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양적·질적인 확충, 가정과 직장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제도 및 재택근무제도의 도입 및 확산 등의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함
유사 실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 시급	- 실제로 실업률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업 및 유사 실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시급
대졸 이상 숙련 노동자의 사회적 활용도 제고	- 4년제 이상 대학 교육과정의 사회적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재학 등의 활동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및 직업의식 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적 활용 가치 제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기업 발전 전략 및 마케팅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인문계열의 산학연계가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고도화 및 성장 가속화를 통해 인문 사회계열 출신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저학력 청장년층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필요	- 산업 현장 경험이 많은 숙련 퇴직 노동자들을 저학력 청장년층에 대한 직업 교육에 활용 - 이러한 교육을 수습한 사람들을 산업 현장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성과가 뛰어난 경우 직접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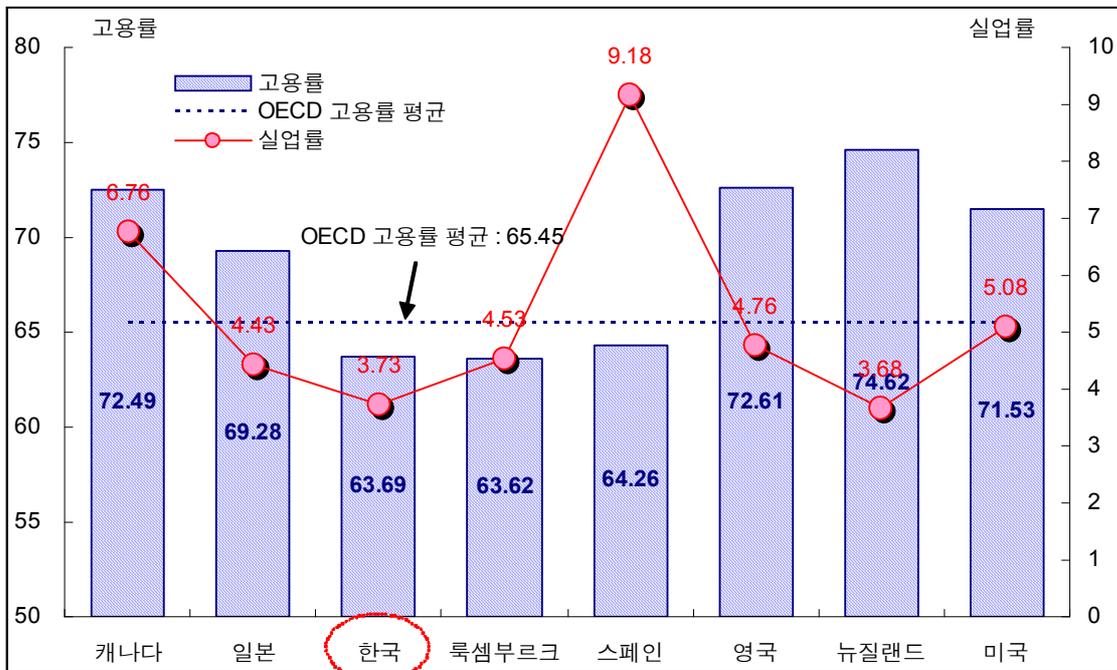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국내 비경제활동인구 너무 많다

1. 한국의 실업률 및 고용률

- (한국의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지만, 고용률 역시 낮은 수준) 2005년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뉴질랜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못 미침

< OECD 주요국의 고용률 및 실업률 >



자료 : www.oecd.org 사이트 참조.

- 한국의 고용률은 OECD 평균 이하 수준 : 한국의 고용률은 2005년 기준으로 OECD 평균 65.45보다 낮은 수준인 63.69를 기록함
- 한국의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 : 2005년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73으로 뉴질랜드의 3.6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이는 실업률 산출 시 비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임

○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낮은 원인)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업인구 감소에 의해 실업률이 하락해도 고용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함

- 실업률과 고용률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인구의 비중을,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¹⁾ 중 취업인구를 말함

$$\cdot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 경제활동인구} = \text{실업자} + \text{취업자}$$

$$\cdot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times 100,$$

$$\text{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 \text{경제활동인구} + \text{비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인구가 취업인구로 전환되어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크면 고용률은 크게 상승하지 못함

· 한국이 OECD 국가 중 실업률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여전히 1,100만 명 수준의 많은 수를 유지하고 있어 실업률 하락에 따른 고용률 상승을 억제함

-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인구로의 전환 필요 : 그동안 고용정책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데에 관심을 가졌으나, 실제로 고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인구로 전환해야 함

·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인구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통해 고용률을 산출함

· 분석결과 2005년 기준 OECD의 고용률 평균 수준인 6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59만 6천 명이 취업인구로 전환되어야 함

· 비경제활동인구가 900만 명으로 줄어들어 취업인구가 238만 명이 증가하면, 고용률은 70%에 진입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인구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률 변화 >

비경제활동인구	1,100만 명	1,000만 명	900만 명	800만 명	700만 명	600만 명
2005	64.8%	67.8%	70.8%	73.7%	76.7%	79.6%
2006	65.3%	68.2%	71.1%	74.1%	77.0%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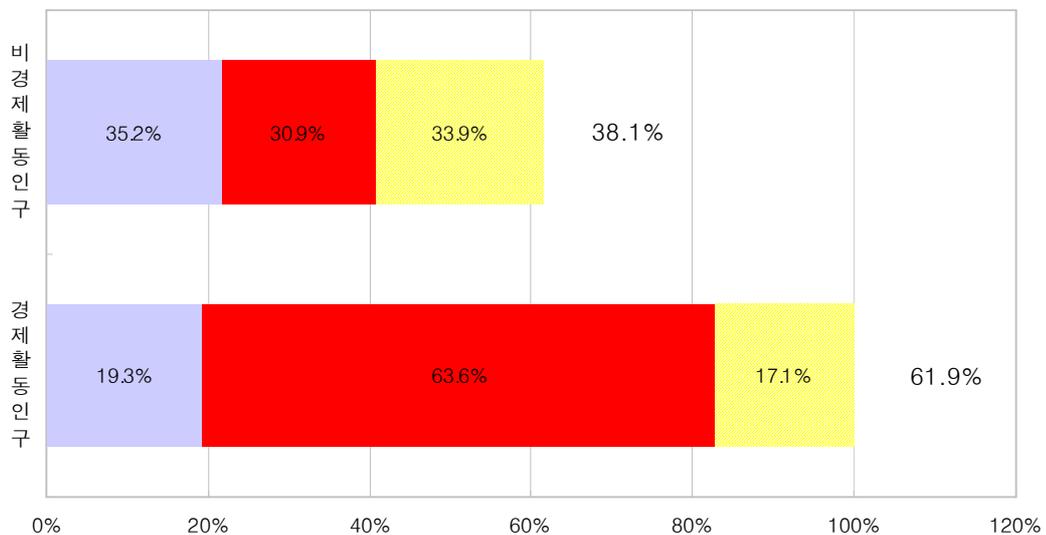
1) 생산 가능 인구는 한국의 통계청과 OECD간 기준이 다름. OECD 기준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64세 미만이며, 한국 통계청 기준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나타냄.

2. 비경제활동인구 분석²⁾

1) 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

- (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 2006년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1,478만 명으로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3,876만 명 중 38.1%에 이르며, 이 중 청년층이 35.2%(521만 명)로 가장 많음

< 경제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계
노년층	4,634,153	5,208,632	9,842,785
장년층	15,246,291	4,568,166	19,814,457
청년층	4,097,733	5,006,874	9,104,607
계	23,978,177	14,783,671	38,761,849

자료 : 통계청 meta data.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를 연령대별³⁾로 살펴보면, 장년층 39.3%(1,525만 명), 청년층과 노년층이 각각 12%(463만 명)와 10.6%(410만 명)를 기록함
- **비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는 청년층이 13.4%(521만 명)로 가장 많으며 노년층과 청년층이 각각 12.9%(501만 명)와 11.8%(457만 명)를 기록함

2) 본 연구는 통계청 원시자료 중 2006년 가구부문 경제활동인구를 이용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함
 3) 청년층과 장년층의 구분은 한국 청년 실업의 기준인 30세를, 장년층과 노년층의 구분은 Osgood과 Howe의 구분이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정년으로 인정되는 55세를 사용함. 따라서 청년층은 15세 이상 30세 미만, 장년층은 30세 이상 55세 미만, 노년층은 55세 이상으로 구분됨

- (연령대별 활동상태) 청년층에서는 정규교육 통학이, 장년층에서는 가사와 육아가, 노년층에서는 가사와 연로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냄
- 청년층 : 정규교육 통학, 육아, 쉬었음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청년층의 정규교육 통학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인 24.8% (367만 명)를 기록했으며, 육아와 쉬었음은 각각 2.4%(35만 명)와 1.7%(26만 명)를 기록함
 - 장년층 : 가사, 육아, 쉬었음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장년층의 가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18.1%(267만 명)을 차지하며, 육아와 쉬었음은 각각 7.2%(107만 명)와 2.8%(42만 명)을 기록함
 - 노년층 : 가사, 연로, 쉬었음 순으로 비중이 높음
 - 노년층의 가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16.4%(242만 명)를 차지하며, 연로와 쉬었음은 각각 10.2%(150만 명)와 4.1%(60만 명)를 기록함

< 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

활동상태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계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일하였음	1,306	0.0%	6,985	0.0%	7,209	0.0%	15,499	0.1%
일시휴직	0	0.0%	0	0.0%	0	0.0%	0	0.0%
구직활동	1,658	0.0%	2,422	0.0%	601	0.0%	4,680	0.0%
발령대기	3,411	0.0%	358	0.0%	0	0.0%	3,768	0.0%
육아	349,188	2.4%	1,066,711	7.2%	92,387	0.6%	1,508,287	10.2%
가사	171,474	1.2%	2,670,349	18.1%	2,422,944	16.4%	5,264,767	35.6%
정규교육 통학	3,669,307	24.8%	31,504	0.2%	2,877	0.0%	3,703,688	25.1%
입시학원 통학	74,528	0.5%	79	0.0%	0	0.0%	74,607	0.5%
취업학원 통학	181,297	1.2%	43,912	0.3%	973	0.0%	226,182	1.5%
취업준비	231,679	1.6%	65,704	0.4%	1,634	0.0%	299,017	2.0%
진학준비	121,100	0.8%	4,260	0.0%	699	0.0%	126,060	0.9%
연로	0	0.0%	0	0.0%	1,501,460	10.2%	1,501,460	10.2%
심신장애	34,553	0.2%	168,094	1.1%	267,692	1.8%	470,338	3.2%
군입대 대기	56,068	0.4%	0	0.0%	70	0.0%	56,138	0.4%
결혼 준비	8,963	0.1%	3,415	0.0%	843	0.0%	13,221	0.1%
쉬었음	258,082	1.7%	420,473	2.8%	598,884	4.1%	1,277,439	8.6%
기타	46,018	0.3%	83,900	0.6%	108,601	0.7%	238,519	1.6%
계	5,208,632	35.2%	4,568,166	30.9%	5,006,874	33.9%	14,783,671	100.0%

자료 : 통계청 meta data.

주 :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활동상태의 인구 비중(%)을 나타냄.

2)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 많으며, 장년층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약 6배 규모에 이릅니다

- 남성 :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의 비중은 33%(489만 명)를 기록함
 -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17.2%(255만 명)로 가장 높았으며, 노년층이 11.2%(166만 명), 장년층이 4.6%(68만 명)를 기록함
- 여성 :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67%(990만 명)를 기록함
 - 여성의 경우, 장년층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388만 명)로 가장 많으며, 노년층 22.7%(335만 명), 청년층 18%(266만 명)를 기록함

< 성별 경제 및 비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남성	여성	소계
청년층	2,545,861 (17.2%)	2,662,771 (18.0%)	5,208,632 (35.2%)
장년층	684,064 (4.6%)	3,884,102 (26.3%)	4,568,166 (30.9%)
노년층	1,655,405 (11.2%)	3,351,469 (22.7%)	5,006,874 (33.9%)
계	4,885,330 (33.0%)	9,898,342 (67.0%)	14,783,671 (100.0%)

자료 : 통계청 meta data.

주 :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활동상태의 인구 비중(%)을 나타냄.

○ (성별·연령대별 활동상태) 남성의 경우 정규교육 통학이 여성의 경우 가사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남성 장년 및 노년층의 쉬었음 비중 역시 크게 나타남

- 유사 실업에 있는 인구 많음 : 모든 성별 및 연령대별에서 쉬었음, 기타, 취업학원 통학 및 취업 준비와 남성 육아 및 가사와 같은 실업에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의 14.8%(219만 명)임
 -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남성 육아 및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 (15만 명), 쉬었음은 8.6%(128만 명), 기타는 1.6%(24만 명), 취업학원 통학 및 취업 준비는 3.6%(53만 명)을 기록함

- 남성 활동 상태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대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정규교육 통학이 13.2%(195만 명), 장년층의 경우 쉬었음이 2.4%(35만 명), 노년층의 경우 연로와 쉬었음이 각각 5.4%(80만 명)와 3.6%(53만 명)를 차지
- 여성 활동상태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대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정규교육 통학이 11.6%(172만 명), 장년층의 경우 육아 및 가사가 각각 7.2%(106만 명)와 17.7%(262만 명), 노년층의 경우 가사와 연로가 각각 15.8%(233만 명)와 4.7%(70만 명)를 차지

< 성별·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

활동상태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일하였음	322 (0.0%)	984 (0.0%)	1,841 (0.0%)	5,144 (0.0%)	606 (0.0%)	6,603 (0.0%)
일시휴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구직활동	679 (0.0%)	979 (0.0%)	1,755 (0.0%)	667 (0.0%)	484 (0.0%)	116 (0.0%)
발령대기	1,661 (0.0%)	1,750 (0.0%)	154 (0.0%)	203 (0.0%)	0 (0.0%)	0 (0.0%)
육아	269 (0.0%)	348,919 (2.4%)	3,898 (0.0%)	1,062,814 (7.2%)	348 (0.0%)	92,039 (0.6%)
가사	5,813 (0.0%)	165,661 (1.1%)	48,946 (0.3%)	2,621,403 (17.7%)	91,563 (0.6%)	2,331,381 (15.8%)
정규교육 통학	1,947,481 (13.2%)	1,721,826 (11.6%)	13,745 (0.1%)	17,759 (0.1%)	668 (0.0%)	2,209 (0.0%)
입시학원 통학	41,374 (0.3%)	33,154 (0.2%)	0 (0.0%)	79 (0.0%)	0 (0.0%)	0 (0.0%)
취업학원 통학	91,305 (0.6%)	89,992 (0.6%)	27,390 (0.2%)	16,522 (0.1%)	387 (0.0%)	586 (0.0%)
취업준비	122,103 (0.8%)	109,575 (0.7%)	51,584 (0.3%)	14,120 (0.1%)	1,462 (0.0%)	172 (0.0%)
진학준비	73,366 (0.5%)	47,735 (0.3%)	3,058 (0.0%)	1,202 (0.0%)	599 (0.0%)	100 (0.0%)
연로	0 (0.0%)	0 (0.0%)	0 (0.0%)	0 (0.0%)	801,207 (5.4%)	700,253 (4.7%)
심신장애	21,835 (0.1%)	12,718 (0.1%)	121,248 (0.8%)	46,845 (0.3%)	151,370 (1.0%)	116,322 (0.8%)
군입대 대기	55,892 (0.4%)	176 (0.0%)	0 (0.0%)	0 (0.0%)	70 (0.0%)	0 (0.0%)
결혼 준비	864 (0.0%)	8,099 (0.1%)	549 (0.0%)	2,866 (0.0%)	771 (0.0%)	73 (0.0%)
쉬었음	151,867 (1.0%)	106,215 (0.7%)	352,653 (2.4%)	67,820 (0.5%)	528,381 (3.6%)	70,503 (0.5%)
기타	31,031 (0.2%)	14,987 (0.1%)	57,242 (0.4%)	26,658 (0.2%)	77,489 (0.5%)	31,112 (0.2%)
계	2,545,861	2,662,771	684,064	3,884,102	1,655,405	3,351,469

자료 : 통계청 meta data.

주 : 괄호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활동상태의 비중(%)을 나타냄.

3)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 (성별·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남녀 모두 학력별로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볼 경우 고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고학력일수록 남성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은 감소한 반면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은 높아짐
- 성별·학력별 절대 비중 :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졸 여성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남성과 여성 각각 대학원 이상 비중이 가장 적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졸 남성의 비중은 12.5%(185만 명)로 가장 컸으며, 중졸 9.6%(142만 명), 초졸 6.7%(99만 명), 대졸 3.1%(46만 명), 전문대졸 0.8%(12만 명), 대학원 이상 0.3%(5만 명)을 차지
 -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졸 여성의 비중은 23.9%(354만 명)로 가장 컸으며, 중졸 12.5%(185만 명), 초졸 19.4%(287만 명), 대졸 7%(103만 명), 전문대졸 3.7%(55만 명), 대학원 이상 0.3%(5만 명)을 차지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대 비중 >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남	인구	986,293	1,417,275	1,853,143	124,105	457,503	47,010
	비중	(6.7%)	(9.6%)	(12.5%)	(0.8%)	(3.1%)	(0.3%)
여	인구	2,869,885	1,850,650	3,540,071	553,628	1,034,443	49,664
	비중	(19.4%)	(12.5%)	(23.9%)	(3.7%)	(7.0%)	(0.3%)

자료 : 통계청 meta data.

주 :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대 비중 = 각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각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합.

- 남성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상대 비중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대 비중은 고학력일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대졸이 전문대졸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볼 경우, 중졸이 49.2%로 가장 높으며 초졸 이하가 44.6%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8.0%로 가장 낮음
 -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비중은 대학원 이상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따라서 고학력일수록 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의 상대 비중은 12.4%로 전문대의 비중 8.5%보다 높았으며, 이는 전문대를 졸업할 경우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 남성 경제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대 비중 >

학력	경제활동인구(명)	비경제활동인구(명)	경제활동비중 ¹⁾	비경제활동비중 ²⁾
초졸 이하	1,226,072	986,293	55.4%	44.6%
중졸	1,463,253	1,417,275	50.8%	49.2%
고졸	6,181,699	1,853,143	76.9%	23.1%
전문대졸	1,333,492	124,105	91.5%	8.5%
대졸	3,233,676	457,503	87.6%	12.4%
대학원 이상	539,482	47,010	92.0%	8.0%

자료 : 통계청 meta data.

주 1. 경제활동인구의 상대 비중 =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2.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대 비중 = 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 여성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상대 비중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대 비중은 고졸이 가장 높은 반면 상대 비중은 고학력일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대졸 인구가 전문대졸 인구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볼 경우, 초졸 이하가 61.4%로 가장 높으며 중졸이 60.2%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22.3%로 가장 낮음
 -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비중은 대학원 이상이 77.7%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학력에 따라 고학력일수록 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남
 -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의 상대 비중은 12.4%로 전문대의 비중 8.5%보다 높았으며, 이는 여성 역시 전문대를 졸업할 경우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 여성 경제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대 비중 >

학력	경제활동인구(명)	비경제활동인구(명)	경제활동비중 ¹⁾	비경제활동비중 ²⁾
초졸 이하	1,800,697	2,869,885	38.6%	61.4%
중졸	1,223,801	1,850,650	39.8%	60.2%
고졸	4,011,839	3,540,071	53.1%	46.9%
전문대졸	1,172,988	553,628	67.9%	32.1%
대졸	1,618,149	1,034,443	61.0%	39.0%
대학원 이상	173,029	49,664	77.7%	22.3%

자료 : 통계청 meta data.

주 1. 경제활동비중 =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2. 비경제활동비중 = 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 (연령대별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모든 연령층에서 고졸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84.7%(1,252만 명)가 고졸 이하의 학력임
- 청년층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 청년층의 경우 중졸과 고졸의 비중이 높았으며, 각 학력별로 남성과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차이는 거의 없음
 - 청년층의 경우, 고졸이 15%(222만 명)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 13.3%(197만 명), 초졸 이하가 2.6%(39만 명), 대졸이 2.3%(34만 명), 전문대졸이 1.8%(27만 명), 대학원 졸업 이상이 0.1%(1만 명)를 기록함
 - 장년층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 장년층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7.3%(107만 명)로 남성의 1.3%(19만 명)에 비해 5배 이상 많음
 - 장년층의 경우, 고졸이 15.8%(233만 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5.7(84만 명)%, 중졸이 3.9%(58만 명),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6%(39만 명), 전문대졸이 2.5%(38만 명) 그리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0.4%(5만 명)를 기록함
 - 노년층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 노년층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1.7%로 여성의 0.8%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 노년층의 학력 형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0.8%(308만 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5.7%(84만 명), 중졸이 4.8%(72만 명), 대졸이 2.1% (31만 명), 전문대졸과 대학원 졸업 이상이 각각 0.2%(4만 명)를 기록함

< 연령별·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초졸이하	인구	213,047	178,693	99,267	288,944	673,978	2,402,248	3,856,178
	비중	(1.4%)	(1.2%)	(0.7%)	(2.0%)	(4.6%)	(16.2%)	(26.1%)
중졸	인구	1,032,260	939,218	100,582	479,119	284,434	432,314	3,267,926
	비중	(7.0%)	(6.4%)	(0.7%)	(3.2%)	(1.9%)	(2.9%)	(22.1%)
고졸	인구	1,122,329	1,101,077	290,234	2,043,304	440,580	395,690	5,393,214
	비중	(7.6%)	(7.4%)	(2.0%)	(13.8%)	(3.0%)	(2.7%)	(36.5%)
전문대졸	인구	59,719	206,452	44,980	330,136	19,406	17,040	677,733
	비중	(0.4%)	(1.4%)	(0.3%)	(2.2%)	(0.1%)	(0.1%)	(4.6%)
대졸	인구	113,335	227,840	132,589	705,167	211,579	101,435	1,491,945
	비중	(0.8%)	(1.5%)	(0.9%)	(4.8%)	(1.4%)	(0.7%)	(10.1%)
대학원졸	인구	5,171	9,491	16,411	37,432	25,428	2,741	96,674
	비중	(0.0%)	(0.1%)	(0.1%)	(0.3%)	(0.2%)	(0.0%)	(0.7%)
계	인구	2,545,861	2,662,771	684,064	3,884,102	1,655,405	3,351,469	14,783,671
	비중	(17.2%)	(18.0%)	(4.6%)	(26.3%)	(11.2%)	(22.7%)	(100.0%)

자료 : 통계청 meta data.

- (연령대별·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가능성) 장년층의 경우 남성은 고학력일수록 여성은 저학력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며,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줄어듦
- 청년층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가능성 :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가능성을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초졸 이하나 중졸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이 가장 작게 나타남
 - 남성 청년층의 각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초졸 이하가 93.1%, 중졸이 92.2%, 고졸이 48.1%, 전문대졸 및 대졸이 각각 12%와 20.1% 그리고 대학원졸 이상이 17.3%를 기록함
 - 이를 통해 남성 청년층은 고학력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 역시 청년층의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초졸 이하가 97.3%, 중졸 95.2%, 고졸 53.9%, 전문대졸 및 대졸이 각각 22.3%와 25.5%를 기록했으며, 대학원졸 이상은 23.9%를 기록함
 - 또한 남녀 모두 전문대를 졸업할 경우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적음
 - 청년층 남녀 모두 초졸 이하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를 졸업한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음

< 청년층 경제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대 비중 >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남	경제활동	인구(명)	15,748	87,477	1,208,985	438,713	449,696	24,782
		비중(%)	6.9%	7.8%	51.9%	88.0%	79.9%	82.7%
	비경제활동	인구(명)	213,047	1,032,260	1,122,329	59,719	113,335	5,171
		비중(%)	93.1%	92.2%	48.1%	12.0%	20.1%	17.3%
여	경제활동	인구(명)	5,007	46,878	941,718	720,867	664,007	30,277
		비중(%)	2.7%	4.8%	46.1%	77.7%	74.5%	76.1%
	비경제활동	인구(명)	178,693	939,218	1,101,077	206,452	227,840	9,491
		비중(%)	97.3%	95.2%	53.9%	22.3%	25.5%	23.9%

자료 : 통계청 meta data.

주 : 비중 = 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 장년층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가능성 : 장년층의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줄어든 반면 여성의 경우 대학원 이상을 제외하고 반대의 현상이 발생함
- 남성 장년층의 각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초졸 이하가 20%, 중졸이 10.8%, 고졸이 6.4%, 전문대졸 및 대졸이 각각 4.9%와 5% 그리고 대학원졸 이상이 3.6%를 기록함
- 이를 통해 남성 장년층은 고학력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는 반대로 여성 장년층의 경우 각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가능성은 대학원졸 이상을 제외하고 고학력일수록 크게 나타남
- 여성 장년층의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초졸 이하가 33.2%, 중졸 33.9%, 고졸 41.4%, 전문대졸 및 대졸이 각각 42.5%와 43.3%를 기록했으며, 대학원졸 이상은 21.5%를 기록함
- 또한 남녀 모두 전문대를 졸업할 경우가 대학을 졸업할 경우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적음
- 장년층 중 대학원을 졸업한 남성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은 3.6%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전문대 및 대학을 졸업한 남성 또한 4.9%와 5%의 낮은 가능성을 나타냄
- 반면 장년층 중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은 43.3%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문대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 또한 42.4%와 41.4%로 높은 가능성을 나타냄

< 장년층 경제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대 비중 >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남	경제활동	인구(명)	396,181	828,610	4,254,431	870,946	2,541,950	444,951
		비중(%)	80.0	89.2	93.6	95.1	95.0	96.4
	비경제활동	인구(명)	99,267	100,582	290,234	44,980	132,589	16,411
		비중(%)	20.0	10.8	6.4	4.9	5.0	3.6
여	경제활동	인구(명)	580,265	933,878	2,889,731	446,596	921,931	136,822
		비중(%)	66.8	66.1	58.6	57.5	56.7	78.5
	비경제활동	인구(명)	288,944	479,119	2,043,304	330,136	705,167	37,432
		비중(%)	33.2	33.9	41.4	42.5	43.3	21.5

자료 : 통계청 meta data.

주 : 비중 = 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 노년층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가능성 : 노년층의 경우 대학원졸 이상과 중졸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적게 나타났으며, 또한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적음
- 남성 노년층의 각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초졸 이하가 45.3%, 중졸이 34.2%, 고졸이 38%, 전문대졸 및 대졸이 각각 44.9%와 46.6% 그리고 대학원졸 이상이 26.7%를 기록함
- 남성 노년층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가장 적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전문대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적음
- 여성 역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가장 적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사람이 전문대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적음
- 여성 장년층의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초졸 이하가 66.4%, 중졸 64%, 고졸 68.7%, 전문대졸 및 대졸이 각각 75.5%와 75.9%를 기록했으며, 대학원졸 이상은 31.6%를 기록함
- 또한 남녀 모두 전문대를 졸업할 경우가 대학을 졸업할 경우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적음
- 학력별로 살펴볼 때 노년층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노년층 남성보다 20% 이상 높았으나,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과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의 차는 약 5%를 기록함

< 노년층 경제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대 비중 >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남	경제활동	인구(명)	814,143	547,167	718,283	23,834	242,031	69,749
		비중(%)	54.7%	65.8%	62.0%	55.1%	53.4%	73.3%
	비경제활동	인구(명)	673,978	284,434	440,580	19,406	211,579	25,428
		비중(%)	45.3%	34.2%	38.0%	44.9%	46.6%	26.7%
여	경제활동	인구(명)	1,215,426	243,046	180,390	5,526	32,211	5,930
		비중(%)	33.6%	36.0%	31.3%	24.5%	24.1%	68.4%
	비경제활동	인구(명)	2,402,248	432,314	395,690	17,040	101,435	2,741
		비중(%)	66.4%	64.0%	68.7%	75.5%	75.9%	31.6%

자료 : 통계청 meta data.

주 : 비중 = 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4) 계열별 비경제활동인구

○ (학력별·계열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전문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227만 명)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이 비경제활동인구의 48.9%(111만 명)로 가장 컸으며, 의약계열이 4.2%(10만 명)로 가장 낮았음

- 계열별 비경제활동인구 : 대졸 여성의 인문계열이 전문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2%(80만 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졸 남성의 인문계열 비중이 13.6%(31만 명)를 기록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문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48.9%(111만 명)로 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계열이 15.7(36만 명)%, 공학계열 14%(32만 명), 예체능계열 9.1%(21만 명), 사범계열 8.1%(18만 명), 의약계열 4.2%(10만 명)를 기록함
 - 전반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대학원을 졸업한 인문계열, 사범계열, 공학계열과 대학을 졸업한 공학계열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남성보다 적음
- 전문대졸 계열별 비경제활동인구 : 전문대를 졸업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문계열의 비중이 10.6%(24만 명)로 가장 높았으며, 의약계열이 2.6%(6만 명)로 가장 낮음
 - 전문대를 졸업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학계열 비중이 2.6%(6만 명)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계열 1.3%(3만 명), 자연계열 0.8%(2만 명), 예체능계열 0.3%(7천 명), 사범계열 및 의약계열이 각각 0.2%(4천 명, 5천 명)를 기록함
 -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문계열의 비중이 9.3%(21만 명)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계열 4.9%(11만 명), 공학계열 2.7%(6만 명), 예체능계열 및 사범계열이 각각 2.6%(6만 명), 의약계열이 각각 2.4%(5만 명)를 기록함
- 대졸 계열별 비경제활동인구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문계열의 비중이 35.9%(81만 명)로 가장 높았으며, 의약계열이 1.5%(3만 명)로 가장 낮음

- 대학을 졸업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문계열의 비중이 11.1%(25만 명)로 가장 높았으며, 공학계열 4.8%(11만 명), 자연계열 2.1%(5만 명), 사범계열 1%(2만 명), 예체능계열 및 의약계열이 각각 0.9%(2만 명)와 0.3%(6천 명)를 기록함
- 대학을 졸업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문계열의 비중이 24.8%(56만 명)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계열 7.5%(17만 명), 예체능계열 4.7%(11만 명), 사범계열 4%(9만 명), 공학계열 및 의약계열이 각각 3.4%(8만 명)와 1.3%(3만 명)를 기록함
- 대학원졸 계열별 비경제활동인구 : 대학원 졸업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문계열의 비중이 2.3%(5만 명)로 가장 높았으며, 의약계열이 0.1%(3천 명)로 가장 낮음
 - 대학원 졸업 이상의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문계열의 비중이 1.2%(3만 명)로 가장 높았으며, 공학계열 0.4%(8천 명), 사범계열 0.2%(5천 명),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및 의약계열이 각각 0.1%(3천 명, 1천 명)를 기록함
 - 대학원 졸업 이상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문계열의 비중이 1.1%(3만 명)로 가장 높았으며, 예체능계열 0.5%(1만 명), 자연계열 0.2%(6천 명), 공학계열과 사범계열 및 의약계열이 각각 0.1%(3천 명)를 기록함

< 학력별·계열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졸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인문계열	인구	30,202	210,826	252,381	562,310	26,494	25,732	1,107,944
	비중	(1.3%)	(9.3%)	(11.1%)	(24.8%)	(1.2%)	(1.1%)	(48.9%)
예체능계열	인구	7,379	57,855	20,914	105,786	3,223	10,268	205,425
	비중	(0.3%)	(2.6%)	(0.9%)	(4.7%)	(0.1%)	(0.5%)	(9.1%)
사범계열	인구	4,190	58,487	21,966	90,691	5,054	3,175	183,562
	비중	(0.2%)	(2.6%)	(1.0%)	(4.0%)	(0.2%)	(0.1%)	(8.1%)
자연계열	인구	18,260	110,719	48,069	170,755	3,044	5,653	356,500
	비중	(0.8%)	(4.9%)	(2.1%)	(7.5%)	(0.1%)	(0.2%)	(15.7%)
공학계열	인구	58,810	61,957	108,389	76,558	8,061	3,282	317,058
	비중	(2.6%)	(2.7%)	(4.8%)	(3.4%)	(0.4%)	(0.1%)	(14.0%)
의약계열	인구	5,265	53,785	5,783	28,343	1,134	1,554	95,863
	비중	(0.2%)	(2.4%)	(0.3%)	(1.3%)	(0.1%)	(0.1%)	(4.2%)

자료 : 통계청 meta data.

주 : 비중 = 각 성별·계열별 비경제활동인구 / (전문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의 합).

3. 정책적 시사점

-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단순히 실업인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이 필요
 - 낮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 : 한국이 낮은 실업률에도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 필요 : 따라서 단순히 실업인구의 취업인구로의 전환에서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인구로의 전환을 통해 고용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이를 위해 청년층과 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 흡수, 여성 인력 활용, 유사 실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 대졸 이상 숙련 노동자의 사회적 활용도 제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함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 흡수
 - 정규 교과 과정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통해 상급 교육 과정으로의 진학이 불가능한 청년들의 조기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들에 대한 고용 보조 등의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축소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은 부모에게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 마련, 청년층들에 대한 사회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선진국 사례 1 스웨덴) 1992년 7월에 도입된 “청소년 실천(Youth Practice)”은 18세와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참가자들은 수당을 받게 되며, 고용주들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받을 수 있음⁴⁾

- (선진국 사례 2 프랑스) 1997년의 NSEJ는 공익의 성격을 지닌 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⁴⁾
- **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 흡수**
 - 한국의 경우 사오정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장년층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능력에 비해 일찍 사회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빈번함
 -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이직, 전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고급 여성 인력 활용 필요**
 -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여성부가 생길 정도로 사회·경제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음
 - 또한 고학력 및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급 여성 인력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여성 인력이 필요함
 - 그러나 육아 및 가사라는 여성 본연의 업무로 상당수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음
 - 따라서 고급 여성 인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가사 및 육아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양적·질적인 확충, 가정과 직장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제도 및 재택근무제도의 도입 및 확산 등의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함⁵⁾
- **유사 실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 시급**
 - 그동안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에만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급급했지만, 실제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에 속한 인구가 많음
 - 이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은 높지만 공식 지표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4) 정인수 외, 『1만~2만 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6, p44

5) 정인수 외, 『1만~2만 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6, p220

6) 김태홍, 문유경, 「여성의 실업구조와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여성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제57권, 1999.

- 따라서 실제로 실업률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체감 실업률의 파악을 통해 실업 및 유사 실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시급
- **대졸 이상 숙련 노동자의 사회적 활용도 제고**
 - 4년제 이상 대학 교육과정이 사회적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재학 등의 활동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및 직업의식 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적 활용 가치 제고
- **인문사회계열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이공계 출신의 낮은 위상을 지적하면서 이공계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볼 경우 이공계보다 인문사회계열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이공계열이 산학 연계가 강화되었듯이,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기업 발전 전략 및 마케팅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인문계열의 산학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고도화 및 성장 가속화를 통해 인문 사회계열 출신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저학력 청장년층에 대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저학력 청장년층에 대한 직업 교육을 제조업 등 산업 현장 경험이 많은 숙련 퇴직 노동자 등을 활용함으로써 청·장년층의 취업 가능성은 물론이고 기술 전승, 고령자 활용도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업 교육을 수습한 사람들은 산업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성과가 뛰어난 경우 직접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적 자치를 마련함 **HRI**

이부형 연구위원(☎ 3669 - 4011, lbh@hri.co.kr)

임상수 연구위원(☎ 3669 - 4125, happylims@hri.co.kr)

<참고 > 비경제활동인구 데이터

- 통계청 원시자료 중 2006년 가구부문 경제활동인구를 이용
- 2006년 경제활동인구 중 성별, 교육정도별, 수학여부별, 활동 상태별, 1주간 구직여부별, 취업가능성별, 만 나이, 승수의 항목을 지닌 데이터에서 1주간 구직 여부 0번과 취업가능성 1번을 제거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를 산출
- 각 항목 세부 내용
 - 교육정도별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 계열별 : 인문사회, 예체능, 사범, 자연, 공학, 의약 계열
 - 수학여부별 : 졸업, 재학, 중퇴, 휴학
 - 활동 상태별 :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발령대기, 육아, 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 취업준비, 진학준비, 연로,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쉬었음, 기타
 - 1주간 구직 여부 : 1번(구해보았음), 2번(구해보지 않았음), 0번(1, 2번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가능성 : 1번(있었음), 2번(없었음)
 - 승수 : 각 항목별 인구의 가중치(12로 나누어 1년 기준으로 생성함)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P)	2007(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8	7.0	3.1	4.7	4.2	5.0	4.5
	최종소비지출 (%)	4.9	7.6	-0.3	0.4	3.9	4.5	4.4
	민간소비 (%)	4.9	7.9	-1.2	-0.3	3.6	4.2	4.3
	총고정자본형성 (%)	-0.2	6.6	4.0	2.1	2.4	3.2	4.5
	건설투자 (%)	6.0	5.3	7.9	1.1	-0.2	-0.4	2.5
	설비투자 (%)	-9.0	7.5	-1.2	3.8	5.7	7.6	7.5
대 외 통 계 관 거 기 래 준	경상수지 (억 \$)	80	54	119	282	166	61	-30
	무역수지 (억 \$)	93	103	150	294	232	161	110
	수출 (억 \$)	1,504	1,625	1,938	2,538	2,844	3,250	3,600
	증가율 (%)	(-12.7)	(8.0)	(19.3)	(31.0)	(12.0)	(14.4)	(10.8)
	수입 (억 \$)	1,411	1,521	1,788	2,245	2,612	3,094	3,490
	증가율 (%)	(-12.1)	(7.8)	(17.6)	(25.5)	(16.4)	(18.4)	(12.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4.1	2.7	3.6	3.6	2.8	2.2	2.5
	실업률 (%)	3.8	3.1	3.4	3.7	3.7	3.5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91	1,253	1,192	1,145	1,024	955	925
	국고채금리 (평균, %)	5.7	5.8	4.6	4.1	4.3	4.8	5.0